



우즈베키스탄 대학 한국어교육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Lee Ji-won

Professor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National University of World Languages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모색 -
세계언어대학교 한국어 학과 이지원

ARTICLE INFO:

Received:14.10.2026

Revised: 15.10.2026

Accepted:16.10.2026

KEY WORDS: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 디지털
기술, 에듀테크, 디지털
리터러시, 생성형
인공지능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외국어교육의 교수·학습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에서도 온라인 학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듀테크, 메타버스,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 학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환경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은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자료를 다양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및 에듀테크의 활용과 관련된 국내 연구와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연구의 주요 경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디지털 기술은 한국어 학습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와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사의 디지털 역량,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기관의 기술적·제도적 지원, 교육 목적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혁신적인 에듀테크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교육용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최신 기술 자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 교수 학습 목표에 적합한 디지털 기술을 선택하고 이를 기존 수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학습자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교수 학습 과정과 디지털 기술의 연계, 대학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 온라인 플랫폼의 확대,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은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어교육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교실 중심 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어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초기에는 전자사전이나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디지털 자료가 주로 보조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 에듀테크, 메타버스,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한국어 교사의 디지털 도구 활용 경험과 인식, 에듀테크 활용 경험,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손현미·성인경·김지현(2024)은 한국어 교사 63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 활용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이경(2024)은 한국어 교사 53 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활용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확대는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이 더 이상 단순한 보조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교수·학습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학습자가 번역, 어휘, 문법, 작문 등의 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직접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박서옥·김나래·민경아(2025)는 한국어 교사 55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최근에는 박부전(2026)이 국내외 대학 수준 한국어 학습자 112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과 교육 환경 및 학습자의 요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오선경(2023)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습자 77 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기반 한국어교육에 대한 경험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편이었으며, 교육용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공개 동영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혁신적인 에듀테크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에듀테크 활용을 위해 교사의 역량과 인터넷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타났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어떤 기술이 어떠한 교육적 목적에 활용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환경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 활용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학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되어 왔는가?

둘째,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징과 과제가 나타나는가?

셋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학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설문조사나 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기존 연구를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에듀테크, 메타버스,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을 다룬 연구와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의 교육 환경 및 학습자 특성을 다룬 연구로 한정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검토하여 디지털 기술 활용의 교육적 가능성과 실제적인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현지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전환과 한국어교육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은 단순히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 자료의 제작과 공유, 학습자의 참여 방식,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학습 결과의 평가 등 교육의 전 과정이 디지털 환경과 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국어교육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녹음 자료, CD, 전자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면 현재에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상회의 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LMS), 디지털 교재, 메타버스, 생성형 AI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 → 온라인 학습 → 에듀테크 →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

이러한 단계는 각각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동영상은 디지털 자료이면서 온라인 학습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고, 학습관리시스템은 디지털 자료와 학습 활동을 연결하는 에듀테크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환경에 생성형 AI가 결합하면서 학습자가 개인화된 피드백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논의할 때에는 특정 기술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술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다.

2.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의 유형과 활용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학습 자료**이다. 디지털 교재, 온라인 동영상, 음성 자료, 이미지, 전자사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는 특히 듣기와 발음 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학습관리시스템이나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상호작용할 수 있다.

셋째, 에듀테크**이다. 에듀테크는 단순한 디지털 자료를 넘어 학습자의 활동과 평가, 상호작용 등을 지원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학습 플랫폼, 게임형 학습 도구, 메타버스 등이 활용되고 있다.



넷째,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생성형 AI 는 학습자가 질문을 입력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기술과 차이가 있다. 어휘와 문법 설명, 작문 피드백, 대화 연습, 번역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교육 효과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보다 해당 기술을 어떠한 교육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

III. 한국어교육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1. 에듀테크 및 디지털 전환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연구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진희(2024)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한국어교육학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면서 에듀테크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의 교육적 활용이 아직 도입과 적용의 단계에 머무르는 연구도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 연구가 단순히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가'를 보여주는 데에서 나아가 '왜 그 기술이 필요한가', '어떤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경(2024)은 한국어 교사 53 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활용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 교사들은 에듀테크가 학습자 중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에듀테크 관련 교육 기회 확대와 실천 공동체 구축, 교육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동일한 디지털 도구라도 교사가 수업 목표와 학습자 수준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육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2. 디지털 도구 활용과 한국어 교사

손현미·성인경·김지현(2024)은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및 대학(원)에 재직하는 한국어 교사 63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 활용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전문가 11 명을 대상으로 FGI 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디지털 도구의 보유와 사용, 교육적 효과, 활용상의 어려움, 기관의 지원,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 디지털 기술 활용이 개인 교사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차원에서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장비, 교육 기회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대학에서도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연수, 교수자 간 경험 공유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메타버스와 교사 교육

조민경·김소영·윤영(2024)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사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와 기능 조작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관련 교육 이후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능 조작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후속 교사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할 때 기술 자체보다 교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교사에게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회성 연수보다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4. 생성형 인공지능과 한국어교육

최근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빠르게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박서욱·김나래·민경아(2025)는 한국어 교사 55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생성형 AI 를 한국어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교사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학습자 측면에서도 생성형 AI 활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부전(2026)은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학 수준 학습자 112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특히 어휘, 문법, 작문 등에서 생성형 AI 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유용한 학습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AI 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표절, 개인정보, 과도한 의존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이는 생성형 AI 를 한국어교육에 도입할 때 '사용 여부'보다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습자가 AI 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즉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IV.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1.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의 특징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은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은 교육 자료의 부족이나 교실 수업의 시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 환경은 한국의 한국어교육 환경과 동일하지 않다. 교사 수, 교육 자료, 인터넷 환경, 학습자의 디지털 경험, 대학의 지원 체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현지 교육환경을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다.

2.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는 오선경(2023)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습자 77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환경 및 디지털 기기 사용 현황, 한국어교육 기관과 독학 과정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경험,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했으며, 인터넷 환경도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혁신적인 에듀테크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학습자들은 에듀테크의 장점으로 재미, 학습 자료의 다양성과 풍부성, 시간과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교육용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공개 동영상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에듀테크 활용을 위해 교사의 역량과 인터넷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요한 과제도 제시한다. 즉 학습자에게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다는 사실과 교육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높은 디지털 접근성을 실제 한국어 학습 활동으로 연결하는 교수·학습 설계가 필요하다.

3.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의 주요 과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우즈베키스탄 대학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사의 디지털 역량 문제**이다.

디지털 기술이 다양해질수록 교사가 모든 기술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콘텐츠의 문제이다.

단순히 한국어 동영상이나 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언어적 차이를 고려한 문법, 어휘, 발음 콘텐츠가 요구된다.

셋째, 디지털 기술과 수업의 연계 문제**이다.



기술 자체가 수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의 향상을 위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넷째, 대학 차원의 지원 문제**이다.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디지털 교육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인터넷 환경,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교사 연수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V. 우즈베키스탄 대학 한국어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향

1.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과 기능 조작의 어려움이 실제 수업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것보다 실제 한국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단계적 교육이 가능하다.

- 1 단계: 디지털 자료 검색 및 활용
- 2 단계: 온라인 학습 자료 제작
- 3 단계: 학습관리시스템 및 에듀테크 활용
- 4 단계: AI 를 활용한 수업자료 및 활동 개발
- 5 단계: 생성형 AI 활용과 AI 리터러시 교육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교사가 기술을 한꺼번에 습득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우즈베크인 학습자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두 번째 방향은 학습자의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 자료는 매우 다양하지만 상당수는 영어권 또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제작되어 있다. 따라서 우즈베크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조사, 높임법, 어미, 발음, 띄어쓰기 등은 우즈베크어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짧은 문법 설명, 발음 비교, 어휘 퀴즈, 듣기 자료, 말하기 연습 등을 제공한다면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3. 교수·학습 과정과 디지털 기술의 연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별도의 수업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한국어 수업과 연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듣기 수업에서는 온라인 동영상이나 음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말하기 수업에서는 온라인 음성 녹음 및 AI 대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읽기 수업에서는 온라인 기사와 디지털 사전을 활용할 수 있고, 쓰기 수업에서는 디지털 문서 작성과 AI 기반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 는 교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학습자가 교사의 피드백을 받기 전에 자신의 글을 점검하거나 다양한 표현을 탐색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AI 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AI 가 제시한 문법 설명이나 표현이 실제 한국어 사용에서 적절한지를 교재, 사전, 교사의 설명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대학 차원의 지원 및 대학 간 협력

디지털 기술 활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첫째,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교육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교사가 디지털 수업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이 자신이 개발한 자료와 수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즈베키스탄 대학 간 또는 한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 디지털 콘텐츠를 공동 개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 관련 대학과 우즈베키스탄 대학이 협력하여 우즈베크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한국어 디지털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기존 콘텐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대학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및 우즈베키스탄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초기의 디지털 자료와 온라인 학습에서 에듀테크와 메타버스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습자의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 및 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기술 자체보다는 교육적 활용 방법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디지털 기기 활용 가능성이 높고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용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인터넷 환경 개선이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둘째, 우즈베크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과 학습 요구를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별도의 교육 요소로 추가하기보다 기존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교육과 연계해야 한다.

넷째, 대학 차원에서 인터넷 환경, 장비, 교사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생성형 AI 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술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연구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AI 는 한국어 학습에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정보의 정확성, 표절, 개인정보, 과도한 의존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대학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때에도 '최신 기술의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학습자의 실제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학 한국어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향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의 실제 활용 정도, 활용 도구, 만족도, 어려움 및 요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별 교육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 활용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결국 우즈베키스탄 대학의 한국어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 교육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데 그치지보다는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교육 자료의 구성, 학습 방식 및 대학의 교육 지원 체계를 함께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은 한국어교육의 목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진희 (2024).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국어교육학이 나아갈 방향 탐색 - 강현화 외(2023)과 에듀테크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 『언어사실과 관점』, 62, 347-371.
2. 박부전 (2026). 한국어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 경험 및 인식 연구 -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한국어교육』, 37(1), 127-150.



3. 박서욱·김나래·민경아 (2025).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한국어 교사 인식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77, 27-62.
4. 손현미·성인경·김지현 (2024). 한국어 교사의 디지털 도구 활용에 대한 인식 연구. 『교사교육연구』, 63(4), 393-412.
5. 오선경 (2023). 에듀테크 기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의 경험과 요구 분석. 『Journal of Korean Culture』, 63, 99-127.
6. 이경 (2024). 한국어 수업에서의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 연구. 『청람어문교육』, 98, 187-223.
7. 조민경·김소영·윤영 (2024). 메타버스 활용 한국어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메타버스 교육 전·후 교사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8(2), 23-42.